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한미일 환율 공조가 주는 시사점

- 거듭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혼란이 더욱 커진 연준 통화정책 전망
- 최근 강달러에 대한 한미일 공조 대응, 통화정책에 대한 혼란을 제어하는 경로
- 연준의 기조는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 인하 시기 탐색' 국면

시중금리가 다시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 더딘 물가 안정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나의 옵션으로 둘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내용들도 매우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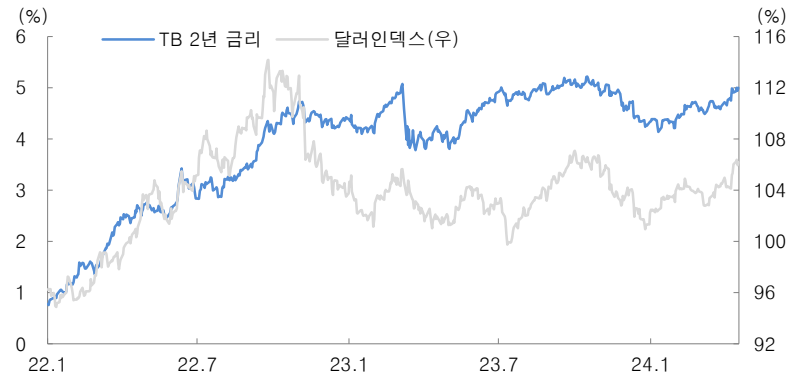
갈팡질팡하는 발언에 대한 해석 과정 역시 부담이다. 특히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전제로 자신들의 생각들을 큰 여과없이 다양하게 밝히고 있는 연준(Fed) 관계자들의 발언은 쏟아지는 발언의 다양성만큼이나 시장에 큰 혼선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최근 한미일의 환율 공조는 정책 당국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 최근 강달러는 연준의 피봇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또 지난 3년간 환율의 방향성이 사실상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 변화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환율 = 연준'이란 구도는 그리 과도한 설정은 아닐 것이다.

우선 한일 간의 환율에 대한 공동 구두개입을 통해 이뤄진 공조는 한미일 재무장관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 단계 수준이 높아졌다. 우리는 한미일의 환율 공조는 현재 연준의 행보를 둘러싼 지나친 확대 해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함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즉 현재 연준의 정책 기조는 울퉁불퉁한 물가로 피봇이 지연됐을 뿐 인하로의 전환이 무산되거나 인상 재개를 염려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의미다.

국가 간의 정책 공조는 상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이뤄진다. 그만큼 향후 자신들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립할 수 없는데, 최근 강달러에 대한 연준의 우려 표명은 현재 자신들의 통화정책 기조(stance)가 '인상 종료와 인하 시기 탐색'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B 2년 금리와 달러인덱스: 통화정책 이슈에 민감한 금리와 환율



자료: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